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December 2024 Issue | Vol. 9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BSP 금리 인하에도 성장 둔화 전망**
—page 1-2
- **상원, 외국인 토지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승인**
—page 2
- **다양화가 더 높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핵심: PEZA, 투자 10% 증가 목표** —page 3
- **‘로케이터’ 부가가치세 문제, CREATE MORE 법안에서 해결**
—page 4
- **바실란 항구 복구를 위한 잠재적 입찰자 초청** —page 5
- **ASEAN+3, 여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page 5

BSP 금리 인하에도 성장 둔화 전망

December 16,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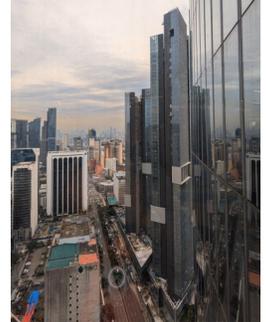
방코 센트랄 응 필리피나스(BSP)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런던 소재 경제 연구소는 가계 소비와 송금 증가세 둔화로 내년 필리핀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2025년 필리핀의 GDP 성장률을 ****5.8%****로 예상했으며, 이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2026년 GDP 성장률은 ****6.5%****로 더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예상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6~8%****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목표치는 정부 간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최근 가정에 따른 것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최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과 추가 금리 인하로 소비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3분기에 나타난 소비 증가세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2023년 GDP의 약 10%를 차지했던 송금과 수출 성장도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Towering skyscrapers dominate the Makati Business District skyline, a symbol of the Philippines' economic aspirations. However, the Philippine economy faces a slower growth trajectory in 2025, with a projected GDP growth of 5.8%, according to Capital Economics. This comes amid challenges like slower household consumption, reduced remittances, and tighter fiscal policies.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소는 재정 적자 대비 GDP 비율 축소가 경제에 대한 예산의 영향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BCC는 내년까지 국가 재정 적자 대비 GDP 비율을 ****5.3%****로 낮추고, 2026년에는 4.7%, 2027년에는 4.1%, 2028년에는 ****3.7%****로 축소할 계획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재정 긴축 정책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2025년 GDP 성장률을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은 ****5.8%**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 성장은 물가 하락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내년 평균 2.8%, 2026년에는 ****3.3%****로 예상되며, 이는 BSP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BSP가 2024년 8월에 25bp(베이스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10월에 추가로 25bp를 인하하는 완화 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BSP가 금리를 총 10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내년 말 기준 정책 금리는 ****4.7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향후 몇 분기 동안 경제 성장 둔화와 식품 물가 하락으로 인해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근원 물가 상승률(기본적인 물가 압력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필리핀은행(BPI)의 수석 부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밀리오 S. 네리 주니어는 이번 주 BSP가 기준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리는 내년 물가 전망이 정책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채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BSP 목표 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Cont. page 2]

BSP 금리 인하에도 성장 둔화 전망

[Cont. from page 1]

네리는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가 필리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조정의) 일시적 중단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경제 지표와 대외 상황이 통화 완화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리는 또한 2025년 BSP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최신 경제 지표가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경제에 직면한 위험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부과와 강제 추방”을 시행할 경우, 이는 미국의 물가 상승을 악화시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거나 최근 통화 완화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 시나리오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특히 무역 정책이 2027년부터 중국과 필리핀 같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참조: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2/12/adb-trump-policies-likely-to-impact-china-phl-in-2027/>)

ADB의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은 특히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2025~2028년 기간 동안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0.3%포인트씩 둔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유로존과 일본 역시 각각 0.4%포인트와 0.5%포인트의 완만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Image credits: [Nonie Reyes](#)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2/16/growth-seen-slowng-despite-bsp-rate-cuts/>

상원, 외국인 토지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승인

December 16, 2024 | Kyle Aristophere T. Atienza | BusinessWorld



PHILSTAR FILE PHOTO

상원은 월요일, 외국인 투자자가 체결한 토지 임대 계약의 최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과 사회 경제 계획 기관을 재편성하는 또 다른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 법안 제2898호는 31년 된 투자자 임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임대 기간을 현재의 75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민간 토지를 초기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으며, 이후 2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중간 선거 전에 통과될 법안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계약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임대한 부동산을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농업, 농림업, 생태 보존을 위한 토지 임대도 가능하게 한다.

상원 의장 프란시스 조셉 G. 에스쿠데로는 “이 법안은 고용 수준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에 기술 도입, 지역 기업과 글로벌 시장의 통합 개선 등 사회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화국법 제7652호에 따른 장기 임대를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여 경제적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그는 성명에서 밝혔다.

상원은 또한 국가 경제 개발청을 **경제 계획 개발부(DEPDev)**로 재편성하는 법안을 세 번째 및 최종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DEPDev를 “경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 조정 및 모니터링 기관”으로 설정한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2/16/641956/senate-approves-bill-extending-foreigner-land-leases-to-99-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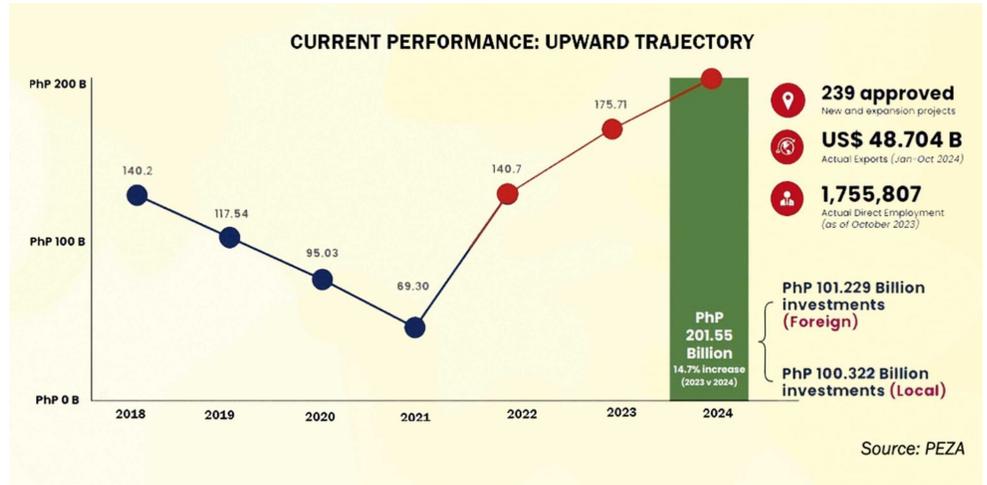
다양화가 더 높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핵심: PEZA, 투자 10% 증가 목표

December 17,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2025년까지 신규 기술 도입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보다 최소 10% 증가한 투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은 또한 2012년에 달성한 최대 투자 등록 기록을 초과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PEZA는 2024년 말까지 투자 등록이 2,350억 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130억 페소는 화요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투자 등록 수준이 최소 2,500억 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의 테레소 팡가 청장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제조업에서 비전통적인 시장과 신기술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목표는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주요 경쟁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목표는 2012년 기록된 3,119억 페소의 최고 투자 등록을 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PEZA 청장은 "전자제품, IT-BPM(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등 승리한 산업과 일본과 미국과 같은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출처들이 2025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기록을 깨는 순간,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진지한 FDI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팡가 청장은 덧붙였다.

이 정부 기관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시설을 특별 경제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투자자들에게 지원하고 등록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 필리핀을 그들의 아시아 지역 진입점으로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팡가 청장은 말했다.

이제 PEZA는 국내 지향적인 기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필리핀은 FDI를 유치하는 데 있어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이웃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며 더 많은 국내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FDI에만 완전히 의존할 수 없다"고 팡가 청장은 말했다.

처음으로 바레인, 아프리카, 러시아 등 비전통적인 시장들이 필리핀의 특별 경제구역에 관심을 보였다고 PEZA는 밝혔다.

필리핀에 대한 다른 주요 FDI 출처는 한국, 중국, 대만이다.

PEZA의 팡가 청장은 PEZA가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히 2025년에 시작될 예정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ASEAN, ASEAN 무역 파트너(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일본, 그리고 **유럽 자유무역지역(EFTA)**과 기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체결한 FTA의 서명국이기도 하다.

PEZA는 2025년에 실현될 건전한 투자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에 대한 대체 가능한 솔루션을 찾고 있는 초기 기술 분야의 기업들과 관련이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 제조, 데이터 센터, 녹색 광석 또는 광물 처리, 집적 회로 설계 및 전자 제조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PEZA는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위한 바이오폴리머,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위한 실리콘 카바이드, 태양열 집중기, 해양 기반 생태 구역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투자할 잠재적 투자자들을 살펴보고 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enterprise/diversification-key-to-higher-fdis-peza-eyes-10-rise-in-investments/>

‘로케이터’ 부가가치세 문제, CREATE MORE 법안에서 해결

December 17,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CREATE MORE 법안을 통해 로케이터들의 부가가치세(VAT) 관련 우려가 해결되었음을 밝혔다.

월요일 브리핑에서 PEZA의 테레소 O. 팡가 청장은 기자들에게 투자 촉진 기관(IPA)이 국세청(BIR) 및 ****재정 인센티브 심사위원회(FIRB)****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의 ****시행 규칙(IRR)****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레소 O. 팡가 PEZA 청장은 "이제 CREATE MORE 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 규칙(IRR)이 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법에서는 특히 수출 기업인 로케이터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PEZA는 ****외국인 투자 부정 목록(FINL)****에서 여섯 가지 항목을 제외했으며, 이는 부정 목록을 단축시키고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4년 1월부터 부정 목록 축소에 대한 보장을 해왔으며, 이는 의회에서 통과된 이전 법률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 [BusinessMirror 링크](#)).

팡가 청장은 또한 ****국세청(BIR)****이 PEZA 로케이터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액션 센터를 설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변경 사항이 특히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PEZA 로케이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어쩌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기업들에 더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법의 시행 규칙(IRR), ****세무 메모랜드 서클(RMCs)****과 CREATE 법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고 팡가는 말했다.

지난해 팡가는 일부 로케이터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재를 공급받는 것보다 세금 혜택과 면세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재를 수입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BIR)****의 등록 활동에서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했던 "회색지대" 때문이었다.

2023년 4월, ****국세청(BIR)****은 ****부가가치세 제로화 규정(RR 3-2023)****을 발표하여 제로화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목록을 명확히 했다. (참고: [BusinessMirror 링크](#)).

한편, CREATE MORE 법안에서 도입된 변경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안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었다.

필리핀 상원은 월요일, 외국인 사업체에 대해 현재 5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세 번째 읽기에서 통과시켰다.

테레소 O. 팡가 PEZA 청장은 "현재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토지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는 입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기 투자로 토지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임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필리핀 내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틴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 조이 사르테 살세다 하원 재정위원장은 장기 임대 계약을 허용하면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살세다 위원장은 "더 긴 임대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투자 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BusinessMirror 링크](#)).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2/17/locators-vat-issues-resolved-in-create-more/>

바실란 항구 복구를 위한 잠재적 입찰자 초청

December 16, 2024 | Ashley Erika O. Jose | BusinessWorld

필리핀 항만청(PPA)은 이사벨라 항구의 복구 및 확장 사업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에게 입찰 초청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항만 규제 기관은 바실란 주 이사벨라 시에 위치한 이사벨라 항구의 작업을 위해 5억 4천6백22만 페소를 배정했다.

경매 형식은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PPA는 전했다며, 모든 입찰자는 유사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금액이 프로젝트에 배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1월 21일 입찰 개찰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PPA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1월 21일 전까지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찰자는 프로젝트 진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20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달 초, PPA는 연말까지 최소 두 개의 항만 업그레이드 및 복구 계약이 입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PPA 웹사이트에 게시된 별도의 입찰 공고에서, 규제 기관은 카탄두아네스의 비락 항구 복구 및 개선을 위해 1억 2천7만 페소, 네그로스 오시덴탈의 산카를로스 항구 개선을 위해 3억 5천1백93만 페소를 위한 관심 있는 당사자를 찾고 있다.

향후 4년 동안 PPA는 140억 페소를 포함한 14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약 160억 페소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할 계획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2/16/641953/potential-bidders-invited-to-rehab-basilan-port/](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2/16/641953/potential-bidders-invited-to-rehab-basilan-port/)



ASEAN+3, 여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December 16, 2024 | By Manila Standard Business | Manila Standard



ASEAN+3 거시경제연구소(AMRO)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한국은행(BOK)과 협력하여 서울에서 ASEAN+3 경제 협력 및 금융 안정성 포럼(AMRO 포럼)을 개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회복력 강화, 생산성 재황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AMRO 포럼의 세 번째 회의는 ASEAN+3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하는 경제적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잠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기관의 정책 입안자, 학자, 전문가들이 모였다.

AMRO의 이사인 Kouqing Li는 개회사에서 ASEAN+3 지역의 글로벌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OVID-19 팬데믹과 여러 차례의 충격이 발생한 지 거의 5년이 지나 ASEAN+3 지역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SEAN+3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장기적인 전망은 고령화 인구, 기후 변화 위험,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증가하는 지정 경제적 분열 등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Li는 지역이 장기적인 도전에 적응하기 위한 세 가지 우선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첫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간을 재건하고 정책 유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발전을 수용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재황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분열된 세계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려면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536865/asean3-remains-fastest-growing-region.html](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536865/asean3-remains-fastest-growing-region.html)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Are you reframing your future
or is the future reframing you?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r organization realize new opportunities through a connected approach to transformation.

Reframe your future | [ey.com/en_ph/reframe-your-future](https://www.sgvea.com/en_ph/reframe-your-future)

■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ea.com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

© 2024 S&P Co. All Rights Reserved.